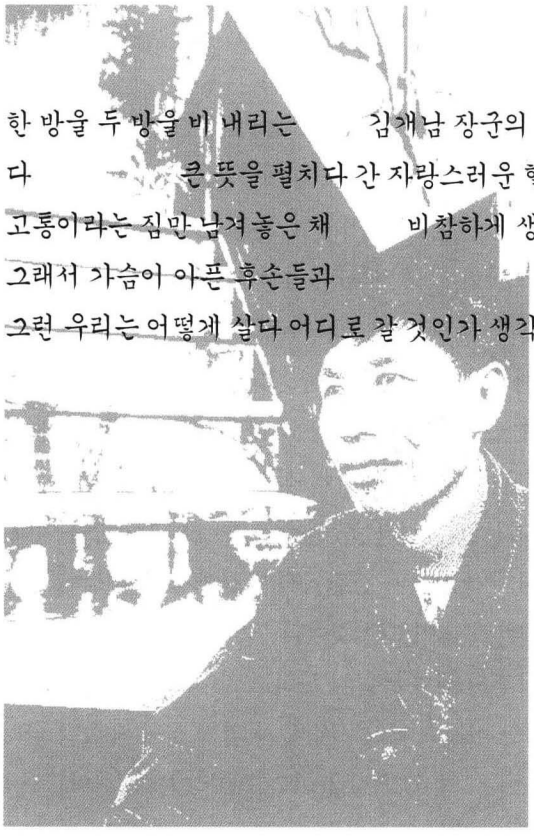

한 방울 두 방울 비 내리는 김개남 장군의 가묘 앞에서 낮 술 한잔을 마셨습니다 큰 뜻을 펼치다 간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로 보다 후손들에게 가난과 고통이라는 짐만 남겨놓은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그것이 못내 원망스럽고 그래서 가슴이 아픈 후손들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내 마음도 흐르고..... 4월 19일

'미련한 짓'을 고집스럽게 계속하는 '현대판 김정호'

이덕일 _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박제가 되어 버린 천재를 아시오?' 라는 물음표로 시작되는 이상의 〈날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나는 인생을 반 이상 살면서 스스로 박제가 된 자칭 '천재' 들은 많이 만났다. 세칭 규격화된 교육을 충실히 받고 일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 남들이 선망하는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런 '박제 천재' 들 말이다. 그런 '박제 천재' 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속으로 '진정한 천재를 한번 만나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고 읊조리곤 했다. 그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진반농반 '천재' 라고 일컫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신정일 선생이다. 내 말이 의심스런 사람은 그가 매일 새벽 띄우는 '강물이 흐르듯 내 마음도 흐르고 (http://cafe.daum.net/sankang)' 를 읽어보라. 매일 새벽 동서고금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펼치는 사유는 그가 지닌 지식의 깊이를 잘 말해준다.

이런 자유롭고 광대한 사유의 세계는 역설적으로 그가 이른바 교육부의 혜택을 별로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속어로 가방끈이 길었으면 그 역시 그렇고 그런 유한계급의 '박제 천재' 의 일원으로 공자님 말씀이나 토해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제도권이 주입하는 강제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자살의 유혹 속에서 삶의 의미를 천착한 끝에 나온 지식이기에 "나의 삶은 한이 있으나 나의 앎은 한이 없다吾生也有涯 而知也無涯:《장자莊子》,〈양생편養生篇〉"는 경지에 다다랐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작년(2002년) 신정일 선생이 쓴《한국사, 그 변혁을 꿈꾼 사람들》(이학사)의 뒤표지에 그를 '태어났을 때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드문 사람' 이라면서, '그런 순수함과 자유로움으로 역사를 바라본다' 라고 썼다. 그의 자유는 순수함이 바탕이 되었기에 붕鵬새(대붕새, 크기가 수천리에 달하며 한 번에 구만리를 난다는 상상의 새)처럼 세상사의 잣대에 가볍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순수의 눈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기에 '견훤, 정지상, 묘청, 만적, 망이, 망소이, 정도전, 조광조, 정여립, 정약용, 김개남' 등 현실에서 실

패한 패자들에게만 시선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승자들이라면 민중들이 어찌 우리 역사에 그토록 한이 많겠는가. 따라서 그가 이들에게 보내는 애정은 그들이 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패배는 곧 당대의 시대정신의 패배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현 시대에 넘쳐나는 위선적 명망가들과는 달리 말과 행동의 일치를 추구한다. 그러나 그는 그 둘을 일치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는 않는다. 사람 자체가 둘을 분리시켜 사고할 줄 모르는 까닭이다. 그 엄혹했던 5공 시절 '동학'을 조직적인 운동으로 전개한 최초의 인물이 신 선생이었다. 그것도 동학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그 시절 그가 가족 친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모 기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른 이유도 바로 '동학' 때문이었다. 그 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역사는 흘러 동학은 역사의 음지에서 양지로 복권되었고, 그 기념사업에 국가예산까지 지원되는 상전벽해桑田碧海가 이루어졌다.

그런 성과들을 뒤로 하고 그는 묵묵히 산을 오르고 강을 걸었다. 《동학의 산, 그 산들을 가다》, 《나를 찾아가는 하루 산행》, 《신정일의 한강역사문화탐사》 등은 이런 길의 산물이다. 안동대 민속학과의 임재해 선생은 그를 '산을 밟는 답산가踏山家'이자, '산에서 노닐며 산과 대화를 나누는 '유산가遊山家'이며, '산을 읽고 삶을 풀어내는 탐산가探山家'라고 평했고, 김지하 선생은 "그가 유목민으로서 삼남 일대의 남조선을 걸어다니는 민중사상가로서의 실천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한, 우리가 지향하는 고조선의 원시반본原始返本, 즉 '정착적 노마디즘'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평했듯이 그에게 산과 강은 이 나라의 역사이자 민중들의 삶이었던 것이다.

그 산과 더불어 그 역사와 더불어 그는 강을 걷는다. 호사가들이 그를 '현대판 김정호'로 부르는 이유는 그가 바로 길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남한의 금강, 섬진강, 한강, 영산강, 낙동강 등을 걸었는데, 주강현 선생에 따르면 "우리는 이 '미련한 짓'을 고집스럽게 해내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존재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특히 이번 낙동강 1천 3백 리 길은 혼자 걸었고, 그 결과 나온 책이 《신정일의 낙동강 역사문화탐사》인데, 이전 지인들과 함께 걸었던 길과는 다른 고독이 책 곳곳에 짙게 배어 있다. '새벽 두 시. 누구도 나를 기다릴 리 없는 태백역에 내려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는' 외로움 속에서 걸었던 낙동강은 열다섯 살 무렵 입산하겠다고 가출했다가 수백 리 길을 걸어 돌아왔던 '그 아스라한 기억 속의 외로움'과 같은 길이었다. 그렇다, 그 길은 인생, 그 자체였다.

며칠 전 봄비 내리는 날 신정일 선생이 전화를 걸어왔다. 전봉준 장군의 그늘에 가려 있는 동학의 맹장 김개남 장군의 109주기 추모제를 거행하고 난 쓸쓸함이 전화에 묻어났다. 그런 쓸쓸함은, "한 방울 두 방울 비 내리는/김개남 장군의 가묘 앞에서/낮술 한잔을 마셨습니다//큰 뜻을 펼치다 간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로 보다/후손들에게 가난과 고통이라는 짐만 남겨놓은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그것이 못내 원망스럽고 그래서 가슴이 아픈 후손들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강물이 흐르듯 내 마음도 흐르고:4월 19일)"라는 회의로 이어졌다.

8년 전 《동학의 산, 그 산들을 가다》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저만큼 보이고 내가 할 일 또한 정해져 있는 듯싶다"고 믿었던 그 길이 흔들리는 것인가?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목청을 높이는 이 시대에 그의 흔들림은 모두가 침묵하던 그 시대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확신이자 선구자의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내일도 그의 도반道伴이고 싶다.